

#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신 임 인 사

부회장 강 정 구

좀 늦은감은 있으나 회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난 일 이기는 합나다만 많이 망설였고 주저하였던 일이었습니다.

모든면에서 부족됨은 물론 많은 선배 여러분도 계신데 감히 출마한다는 일이 현명한 일인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출마가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서지않아 많은 시간 고심을 하였었지만 결국 부회장 출마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또 회원 여러분께서 미친한 저를 뽑아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자라는 점, 부족된 점, 많지만 적은 힘이나마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직분에 충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은 부회장의 직책을 맡은지도 벌써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 애를 쓴다고 하긴 하였는데 좀처럼 나 자신도 만족함을 못 느끼는 물론 직분에 대한 실감조차 나지 않더군요, 하기가 직책이 직책이니 만큼 보람보다는 어려움과 일방적인 희생이 당연하진 합나다만 어떤 사람의 말을 빌자면 의자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다던데 혹시 의자 덕분에 평가절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해 봅니다. 피선된 얼마 후 동료 한 사람 한테 이런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리를 자리로서 만족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답변 하기를 「나도 그런 우(愚)를 범 하지는 않으려는데 그 방법이 막연하다」고 했더니 정관부터 숙지 하는게 순서라고 말해서 방법치고는 너무 싱겁다 생각하고 지나쳐 버렸는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협회 임원으로 4년여를 지냈지만 협회 헌법인 정관 조차 외우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소홀했나 하는 무안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위 협회 임원이란 자가 그럴진대 어떻게 일반회원 한테 정관 운운 해가면서 지도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새삼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허지만 이는 저의 경우이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회장으로서 해야 하겠다는 적은 목표를 두 가지 세 켜 본게 있습니다. 첫째, 부회장의 임무 첫번째로 나와있는 「화장을 적극 보좌하여」를 충실히 이행하려 합니다.

새삼스러운 말씀 같습디다만 학식과 덕망을 함께 갖고 계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하신 회장님을 보필하여 회원 여러분이 바라시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하려합니다. 둘째, 여러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이 되겠습니다만 회원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협회 외적인 일 일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협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라면 사소한 것 일지라도 이사회에 상정하여 건설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겠습니다. 하찮은 일이라 무시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협회 발전에는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부회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두 가지만 부탁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회의 존재를 재인식 해야 할 것 입니다. 일부회원은 협회를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또 심한 경우는 존재가치 까지 의심 하려는 회원이 없지 않음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아본 사람은 조국애를 절실히 느끼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역시 해외라고는 신희 여행 때 제주도 한번 가본게 전부라서 실감은 나지 않습디다만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물론 협회에 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 이지만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어떤 일이 타단체와 혹은 대정부 일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특히 물리치료사의 권익에 문제가 되었다면 금방 느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레 존재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졌으나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협회가 회원여러분이 바라시는 만큼 강력한 영향력과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치 않으나 어느 수준에는 충분히 도달 하였다고 자신하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협회를 과소평가 하거나 초창기 협회만을 생각하고 비하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을 안 하려 하면서 어떻게 타인이 인정 해주길 바라겠습디까?

지금 협회에서도 모든 회원께서 바라시는 바 대로 보다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결되고 영향력 있는 협회로의 발전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디다만 발전의 밑거름은 회원 개개인 한분의 적극적인 참여 입

니다. 참여와 관심에 적극적이신 회원이 점차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회원이 의외로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중부지부를 겸임으로 맡고 있으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지부일에 너무나 피동적이고 남의 일인 무관심함에 당황한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주도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라는 우선 다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점의 발견과 시정으로 해결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 모임 일 조차 관심이 없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는 극소수 지부에 관한 에 입니다. 전동있는 대구·경북지부를 비롯해서 의욕에 넘치는 부산경남지부, 충청지부, 지부장님 이하 모든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명실공히 지부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서울남부지부와 신진 지부장의 노력과 회원의 단합을 목표로 나날이 발전하는 수원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것을 기대하려면 그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최소한의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회원 여러분께 꼭히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무관심은 물론 마지못해 응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 탈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많은 희생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협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꼭 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미천한 저를 뽑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음력 새해로 복 많이 받으시고 강한 한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현황 및 회장단 동정

1983년 교육관리위원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일 시 : 1983. 2. 19 - 20 (2일간)

장 소 : 크라운 호텔

참석자 : 교육관리 위원회 → 김용주, 배성수, 함용운  
노영철, 오경환, 이현옥  
홍완성, 안소윤, 민영학  
신홍철, 이재형, 장수경  
한길용, 장정훈, 이재학  
정진우, 배승학

지부장 연석회의 → 정진우, 배승학, 배성수  
황현교, 김명수, 민영학  
곽대덕, 강정구, 채수성  
함용운, 최재청, 김정숙  
박춘서, 안민규, 신홍철  
어경홍

안 건 : 교육관리 위원회 → 1) 각 학교의 교과과목 및 이수  
학점표

2) 담당 학과목별 참고문헌  
(책명, 저자명 기록)

3) 소개할 새로운 문헌

지부장 연석회의 → 1) 회관건립 기금모금에 관한  
건

2) 지부활성화 방안

3)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4) 회원 보수 교육 및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5) 회원친목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

6) 기타

83. 2. 25. 수원지부 연수회 및 월례회 방문

장 소 : 수원 성빈센트병원 불리치료실

참석자 : 총무이사 배승학

### < 회비 납부자 >

1983.3.15 현재

신윤경 (No. 844 83년)  
송춘숙 (No. 1091 83년)  
박찬미 (No. 576 80.81년 미취업, 83년)  
김여경 (No. 303 78년, 83년 반액)  
이귀옥 (No. 525 83년 반액)

채수성 (No. 160 83년)	강해숙 (No. 456 80년)
김지해 (No. 60 83년)	이영희 (No. 658 83년)
김근조 (No. 471 83년)	박창호 (No. 706 83년 반액)
김호봉 (No. 1239 83년)	장준옥 (No. 707 83년 반액)
전건식 (No. 790 83년)	노재봉 (No. 727 83년 반액)
김성기 (No. 1195 83년)	김용애 (No. 746 83년)
박경순 (No. 589 83년)	이옥규 (No. 757 83년)
이영란 (No. 509 83년)	황삼선 (No. 744 81.82년)
최임순 (No. 1197 83년)	이준희 (No. 639 82년)
최순옥 (No. 702 83년)	국경미 (No. 1076 82년)
김명자 (No. 1132 83년)	이영미 (No. 1027 82년)
두정민 (No. 1004 83년)	이동례 (No. 579 80.82년)
박명희 (No. 821 83년)	이순정 (No. 945 81.82년)
이진우 (No. 564 83년)	이상조 (No. 834 81년)
권윤애 (No. 962 83년)	김행정 (No. 1051 82년)
오상열 (No. 77 82년)	김영찬 (No. 935 81년)
염현섭 (No. 80 82년)	이경애 (No. 996 82년)
이현옥 (No. 242 82년)	송규현 (No. 803 83년)
유재관 (No. 338 80년)	이희숙 (No. 915 83년)
장영실 (No. 379 82년)	이명희 (No. 984 83년 반액)
노석린 (No. 659 81.82년)	우현숙 (No. 1023 83년)
황미정 (No. 651 82년)	신유화 (No. 1151 83년 반액)
윤철환 (No. 687 82년)	지남자 (No. 1180 83년)
박은희 (No. 688 81.82년)	손미향 (No. 1192 83년)
박중주 (No. 737 80.81년)	송기영 (No. 1211 83년)
박혜정 (No. 1170 83년 반액)	천경희 (No. 491 83년)

### < 회지 광고비 >

새한판매 상사 ₩470,000 (잔액완납)

### < 운영비 찬조금 >

과학서적센터 (교육관리위원회 찬조) ₩50,000

### < 신입회원 명단 >

양명옥 (No. 826)  
국경미 (No. 1076)  
이영미 (No. 1027)  
이순정 (No. 945)  
김행정 (No. 1051)  
김영찬 (No. 935)  
이경애 (No. 996)

## <회관건립 기금 납부자>

채수성 (No. 160) ₩ 10,000

이소영 (No. 96) ₩ 10,000

박춘서 (No. 1150) ₩ 5,000

### < 1983년 교육관리 위원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

#### 토의내용 :

정진우 회장님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며 지부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임원들과 자주 만나 토의를 하므로써 우의를 돈독히 하고, 우리 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으므로 다음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합니다.

오늘 모임의 첫번째 안건으로는 회관 건립기금모금 운동인데 지금까지 협회기금은 745 만원이 에치되어 있고, 올해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더할 수 있으나 이 예산으로 올해 협회 사무실을 마련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전번 지부장 모임때에도 토의한바 있으나 수원지부만이 호응이 있는것 같으므로 앞으로는 전 지부가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A.C.P.T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협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그에 대한 의견 및 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수원지부에서 실시한 방법을 지부장님께 직접 듣기로 합니다.

곽대덕 수원지부장 : 좋은 방법이라기 보다는 수원지부 회원들 중에서 협조가 가능한 분들에게 우선 부탁하고,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신 덕분에 손쉽게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다른 지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경남 및 부산지부는?

황현교 경남지부장 : 사실은 얼마전부터 노영철 지부장이 그만두시고 제가 경남 (부산) 지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산 (경남지부포함) 지부 회원수는 87 명이며 저희 지부에서는 우선 협회비 및 지부회비를 걷기로하고 거의 완납상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회관건립기금을 걷을까 합니다.

또, 방법으로는 현 년회비 12,000 원에서 15,000 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전번에도 토의한 바와 같이 년회비를 인상하는것 보다는 영구회원을 많이 확대시켜 영구회비를 걷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강장구 부회장, 중부지부장 : 저희 지부에서 몇명의 회원을 만나 얘기해 보았으나 1 인당 회관건립기금 10,000 원씩을 걷는것이 어려운듯하니 영구회원을 많이 모집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학 재무이사 : 재무이사를 맡기는 했으나 재무담당 일을 잘 몰라 얼마전에 사무국을 둘러 여러 일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회관기금이 현재 741 만원 정도되나 협회등기 문제로 200 만원 정도가 소비되어야 될것 같고 500 만원 정도로 사무실을 얻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무실을 얻은 다음 사무직원의 임금문제도 책정하지 못한 채 있는 상태이므로 영구회비를 많은 회원들이 내 주시므로써 사무실 임대 및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800 만원에서 약 2000 만원 정도는 비축되어야만 유급사무직원을 두고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져 더 부탁드릴것은 각부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세부내용 및 세부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각부의 이사님들은 세부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해서서 저에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채수성 총청지부장 : 총청지부는 17 일날 지부 모임있어서 중앙회 모임시 참석하지 못하고 토의내용을 회보를 통해 읽어 보았습니다. 회관건립기금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전회원들에게 공고하면 더욱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사무실 임대 방법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무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것은 불리치료사중 사무직원으로 적당한 분이 제실출 알고 약 월 15 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사무실을 이끄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중앙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활성화되어야만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회원들 및 임원들께서 협조적이지만 더욱더 지부 활성화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지부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지부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학 재무이사 : 회비에 대한 문제는 월 430 명 정도의 신입회원으로 보면 지부할당금과 기금을 제외하면 약 430 만원 정도로 운영하는데 별지장이 없으나 협회회관 건립기금을 걷는데는 특히 비용 지출계획을 상세히 회원들에게 알리면 더욱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사무실을 얻는데 목적 및 총목표액등 비용을 상세히 계획을 세워 다음 회보에는 실도록 하겠읍니다. 기금마련의 한 방법으로 Goniometer 제작 판매중이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 발간등 여러 방안을 고안하여 각지부장 재량껏 지부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상과 학교에서 사용할수 있는 공통 내용을 담은 책자나 불리치료와 비슷한 분야인 칩, 지압 분야에 관한 책자들을 발간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영학 재무이사 : 영구회비를 내면 영구회원세가 증정되듯이 회관건립기금모금시에도 약간의 기념품 (증정품)을 회원들에게 주는것이 어떨것습니까?

배승학 총무이사겸 사무국장 : 협회 창단이후 현 영구회원이 30 명인데 너무 적은듯 합니다.

이소영 선생님의 기금찬조를 선두로 빠른시일내에 지부장님들은 영구회원의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함용운 감사 : 회원들의 인식시키려면 우리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영구회원에 등록하거나 회관건립기금을 내주시도록 노력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지부 활성화 방안을 듣도록 합니다.

채수성 총청지부장 : 저희 지부는 매달 월요일에 월례회 모임을 갖고 학술대회와 체육 대회 및 야유회 등을 실시하고 모임시 기념품 증정등으로 지부회원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미취업 상태인 회원들이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민영학 재무이사 : 미취업 회원도 지부에서 등록을 받고, 지부의 추천을 받아 취업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입니다.

박춘서 전남지부 총무 : 저희 지부는 요즘은 재정비하여 지부활성화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부 모임에 참석

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감점제를 운운하며 지부 회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중앙회와 지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려면 구두와 통신도 중요하지만 공문으로서 재료를 남기도록 합시다.

황현교 부산 및 경남 지부장 : 지부 총회나 모임시에 중앙회에서 1년에 한번만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회원들이 더욱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중앙회에서도 각지부를 순회하려고 계획 및 예산을 잡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꼭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황현교 부산지부장 : 예를 들어 부산지부에서 타지부로 갈 경우나 타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취업할 경우 지부간에 원활한 통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요번 학술대회는 부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현교 부산지부장 : 대구에서 개최 되었던 것을 참조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을 회원들과 논의하여 중앙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회원들도 중앙회에서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숙소 등 여러계획을 잘매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다음은 회원보수교육 및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합시다.

신입회원 전부를 서울에서 하기란 어려우므로 지부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을 지부로 보내서 지부에서 협회에 가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승학 총무이사 겸 사무국장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 구회원도 참가하여 보수교육의 일부분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학교 교수님들이 중앙회의 임원이므로 학교에서 협회일을 대행 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입회원의 입회절차를 학교에서 대행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수교육 문제도 법적 구속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983년은 제정기간 및

여행 연습기간이므로 회원들에게 인식이 빠른 시일내 되었으면 합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 회보에 실려 있고 1시간당 1평점으로 년 12평점을 수해야 됩니다.

황현교 부산지부장 : 년 12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 구제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정진우 회장님 : 특별이수 방법이 있고 또 벌금을 지불하 방법도 있습니다. 지부에서 보수교육 이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부에서 8평점, 중앙회에서 4평점 받도록 한다.

배승학 총무이사 겸 사무국장 : 3년이상 보수교육에 참치 않을 경우는 면허 취소를 당합니다.

민영학 재무이사 : 협회 임원 몇명이 구성원이되어 구체적인 방안, 평점기준 등의 지침을 만들어 지부별로 통보여 어느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기본적인 것은 회원 수첩 및 도장을 통하도록 하고 4월정도 부터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친목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개최 회원들을 자주 만나도록 하는 기회 제공만으로도 성과이라 생각하고 회원 친목에 주력하도록 합시다. 다음 불리치로 관계업체에 대한 등록문제입니다.

배승학 총무이사 겸 사무국장 : 이제부터는 각 업체에 광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부도 마찬가지로 협회사만을 각 업체에 알려주고 우리 협회에 광고의뢰를 오도록 노력합시다.

### < 회원바둑대회 개최 결과보고 >

일시 ; 1983년 2월 19일

장소 ; Crown Hotel.

최고우승자 ; 박승구 ( 면허번호 522, 국군대구통합병원 인사과 근무 )

### < 수원지부 제 83-1 차 보수교육 결과보고 >

일시 ; 1983.2.25 ( 금요일 ) 18:30-21:30

장소 ; 수원 성빈센트병원 물리치료실

참석자 ; 1) 초청인사 : 협회 중앙회 총무이사 배승학

대중 매디칼상사 김학재

2) 수원지부 : 손토비아수녀 외 26명

교육내용 ; 1) 서독물리치료 의학 및 재활의학에 관한

슬라이드상영

( 연사 - 동남대학 홍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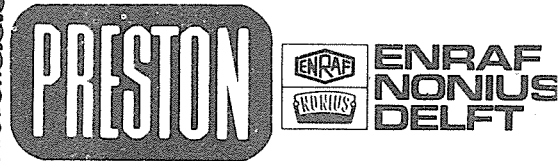
2) 수원지부 회원 오리엔테이션

( 연사 - 중앙협의회 총무이사 배승학 )

<신간안내> 도서 대학서림 763-1220  
출판 764-2745

● An intergrated approach to  
Therapeutic Exercise  
- Sullivan/Markos/ Minor - 7,000 원

● Krusen's Handbook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 Kottke/Stillwell/Lehmann - 15,000 원



물리치료기구제작, 수입 판매.

Medelec, A Vickers Medical Co.

EMG 수입판매.

## 새한販賣商社

### 金 東 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 31  
MEDICAL SUPPLY CENTER BLD.

電話 서울(02) 762-56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